



오베르랑 목사님은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눈 덮인 알자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디어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래 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 방안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나가든 어떤 농부가 자기 오막살이로 데려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상처는 싸매져 있었고 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방안은 따뜻 하게 불이 지펴 있었고 옷은 갈아 입혀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하고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은 눈 덮인 계곡에서 떨어졌으나 얼어죽지 않고 살게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그는 자기를 살려준 그 집 주인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 의 은인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때 농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도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3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9월5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합창 속의 득창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미안해요"
대학 합창단에 들어간 아들이 표 두 장을 내밀었다.
시간에 맞춰 가 보니 나쁜 자리만은 아니었다.
맨 뒤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이다.

막이 오르자 200여 명의 정장을 입은 무리가 우아한 선율과 기막히게 아름다운 화음을 지휘자의 손동작 하나에서 만들어 내고 있었다. 질서와 복종으로 만들어 내는 예술품 속으로 꼭 빠져 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멜로디 속에서 아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처음엔 집에서 연습할 때 귀에 익었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내 귀에는 온통 그 아이 소리밖에 들리질 않았다.
기뻐 눈물을 흘리며 쿠퍼 있다 보니 두 시간이 금새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감격은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마음에 있었던 의문이 하나 풀어진 것이다.

"보통 이하 성도인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열납될까?" 하는 의심에 답을 얻은 것이다.
미천한 나도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시켜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왜 내 소리를 못 들으시겠는가?

기쁨에 차서 드리는 기도, 부끄러워 작은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슬퍼서 이어갈 수도 없는 기도소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는 크게 들리시리라. -윤효순-

정부미는 값이 싸고 품질이 좋습니다

정부미 쌀값

농림부예장 - 80kg가치 6,750원
농림부예장 - 80kg가치 6,800원

○이러한 원유와 주유 도시에서
충분한 양의 정부미를 계속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를 구입은 농림부예장이나
농부 예장에서 원유를 구입하
세요.

○정부가 쌀의 원유를 구입하
세요.

정부미가 좋은점

1. 취미와 겨가 없다
2. 동차 비우 불순물이 없다
3. 건조가 잘되어 밥이 누다
4. 오래저장해도 변질하지 않는다

농림부예장이 사육한 것은 영리윤리관 교양 또는 신묘명사자

1. 2004년 11월 15일 24
2. 2004년 11월 15일 24
3. 2004년 11월 15일 24
4. 2004년 11월 15일 24

고급차이유농산물소
신묘명사자
농림부

▶그뻐 그랬지▶ "정부미"

정부에서 사서 수급을 해서 '정부미'란 이름을 붙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그 이름의 뜻은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보관하였다가 나온 쌀이어서 찰기도 없었고 값도 싸었습니다. 그래도 '이밥에 고기'가 상에 오르는 것이 최고이던 시절, 풀기는 없었어도 정부미로 푸짐해 하던 그때가 입맛도, 행복도 더 많았습니다.

◀닭살 돋는말 한번쯤 하기▶

남편: "당신 아버지 직업이 도둑아니었소?"
아내: "왜요"
남편: "어떻게 하늘의 별을 훔쳐다 당신 눈에 넣었을까?" ♡ ♡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85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5 (시 13)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6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현석호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 3:5-9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 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이로운 삶, 의로운 삶	전병주 목사
찬송 Hymn	488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월의 예배위원◆

◆9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일	예배와 모임
5	현석호	최현철	4구역	5	구역예배(10)
12	김순자	한상미	5구역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김영길	한상숙	6구역	15	성찬주일 은 십자가성가대(4남)
26	김종건	한상순	청년부	26	식사친교(추석)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9월, 이젠 찬 바람이 불어도 봄입니다. 이번달엔 고국의 추석도 있어 봄과 가을을 한꺼번에 누려볼 수 있게 되는 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많은 추수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우소식
*김성국 목사. 한국방문중입니다. 이번주간에 귀국.
- 구역예배주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7:30>
*한 달에 한번 갖는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식구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후엔 즐거운 시간도 되셔야 합니다.
-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수요일예배를 위해 히터를 준비할 때면 어린시절 장작난로에 호야를 켜놓은 채 예배 끝나도 오랫동안 돌아갈 줄 모르던 시골예배당이 생각납니다.
- 심방요청을 기다립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의 가정이나 Shop, 사무실에서 심방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심방요청서' 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담당: 노은숙 권사)
<심방규칙> *Shop, 사무실: 업무중일 경우 차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약 10분-20분의 심방시간 소요
*자택: 차 한잔으로만 준비(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약 30분-1시간 정도 심방소요시간.
*심방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접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심방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착한 시인들▶ 소원 하나쯤은 가슴에 품자 김형호

꼬마야 너도 아가 봤겠지만
 별뿔뿔이 떨어지는 순간은 짧단다
 그 짧은 순간에 소원을 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바로 소원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순산 순간 생각나는 소원은 소원이 아니란다
 자신의 모자람을 보상받으려는
 욕심에 불과하단다
 그러니 너도 너의 소원 하나쯤은
 항상 가슴에 품도록 노력해보렴

주님께 간구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소원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는 매 기도 때마다 아릴것입니다.
 설령 내 사는 동안 이뤄지지 않
 아도 그런 소원 하나쯤 있어야
 은밀히 만나는 주님과 의 로맨스
 가 즐거울테니까요.